

## 전남서남권 지역 경제일지

(2023년 11월중)

11.6	<p>▶ 전남도, 제조업 5개 기업과 423억원 투자협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도가 최근 2개월간 시군과 협력해 제조업 분야 5개 기업과 423억 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했다. 투자협약으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순천, 광양, 영암, 함평, 해남에 17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li> <li>○ 순천 울촌산단에 티와이세라(주)가 191억원을 투자하여 이차전지 양극재용 수산화리튬 건조 및 포장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며, 광양 옥곡신금산단에 서호산전이 38억 원을 투자해 수배전반 및 제어반 제조공장을 신설한다. 목원이엔지는 영암 대불국가산단에 134억 원을 투자해 대형 선박용 스틸 파이프 제조공장을 신설하고, 플러버는 함평 동함평산단에 30억 원을 투자해 시트형 탄성포장재와 실내용 고무 바닥재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해남잡농가는 해남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30억 원을 투자해 고구마를 활용한 다양한 안전 먹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li> </ul>
11.7	<p>▶ 신안군, 허가어선 임대를 통한 청년 어업인 육성으로 어획 실적 44억 원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안군이 청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이 돌아오는 해양신안을 위한 어선구입 임대사업’이 성과를 내며 지역 소득증대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신안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미만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허가어선을 구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5년간 원금과 함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원금을 전액 상환하면 신안군에서 허가 어선의 소유권을 어업인에게 이전하여 준다.</li> <li>○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58억 원과 군비 34억 원 등 총 92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까지 총 39척(55명)의 어선이 임대되어 총 44억 원의 어획 실적을 올렸다.</li> </ul>
11.8	<p>▶ 전남도,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200억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는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해양수산부 2024년 친환경 양식 어업육성 공모사업에 2개소(고흥·진도)가 선정돼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친환경 우량종자(새우) 연구 및 창업귀어 교육·실습장 건립’을 통해 흰다리새우 연구와 종자 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등을 유도할 계획이며, 진도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략품종 육성을 위해 ‘지역 맞춤형 수산종자(김·전복) 실용화센터’를 건립, 진도 해역에 적합한 김·전복 우량종자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li> </ul>
11.9	<p>▶ 진도군, 맞춤형 전문 수산연구소 건립 사업비 100억원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도군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2024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해 양식어업의 기반시설 확충, 기술개발, 첨단·친환경 양식체계로 전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번 선정을 통해 진도군은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군내면 녹진리 일원에 전문 수산연구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전문 수산연구소가 건립되면 김, 전복 등 전략품종 활성화와 종자 보급과 개량을 통한 양식산업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li> </ul>

11.10	<p>▶ 영암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암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의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4,500만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 방식으로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는 지역·마을을 지원하는 것으로 영암군은 사업 선정에 따라 주택 및 건물 태양광 350개소, 주택 태양열 42개소 설치에 나선다. 영암군은 지난 5년 동안 국비 61억 원을 확보, 총 13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0년 339개소, 2021년 468개소의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는 도포면 등 5개 면 408개소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li> </ul>
11.13	<p>▶ 전남도, 2024년 예산안 10조 7천44억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는 10조 7천44억 원 규모의 2024년 본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0조 3천381억 원)보다 3천663억 원(3.5%) 늘어난 규모이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5천억 원 내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긴축재정보다는 전남도민을 위한 (1) 민생투자 (2) 민생안정 행복시책 (3) 청년 응원 (4) 도민 제일의 가치 ‘안전’에 대한 중단없는 재정지원에 방점을 뒀다.</li> </ul>
11.22	<p>▶ 전남도, 올해 자연재해 농가에 1천160억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는 올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 518억 원과 농작물 재해보험금 642억 원을 포함해 총 1천16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4월 이상저온으로 과수피해, 5~7월 집중호우와 긴 장마로 양파와 보리 등이, 8월 태풍으로 벼 침수 등 5회에 걸쳐 발생한 재해로 농작물 3만 2천여ha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전남도에서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를 입은 2만 7천 농가에 대해 농약대와 생계지원비 등 재해복구비 518억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2만 7천 농가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1만 9천 농가에는 농작물 재해보험금 642억 원도 모두 지급했다.</li> </ul>
11.24	<p>▶ 목포시, 신안군과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시가 지난 23일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에 대해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준비)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통합사례분석, 주민의견 조사결과, 통합효과분석 등 성공적인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여러가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li> <li>○ 연구에 따르면 행정통합 효과로 행정편익이 4,58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2천억원으로 전망되었으며 관광 수도 2027년도에 2,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은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검토·보완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초 최종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li> </ul>

11.25	<p>▶ 완도군, 국내 최초 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도군은 24일 해양치유센터 개관식을 갖고 우리나라 해양치유산업의 서막이 열렸음을 알렸다. 지난 2020년 착공한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5개의 테라피실, 2층에는 건강 진단실과 11개의 전문 테라피실로 구성됐다.</li> <li>○ 완도군은 센터 개관에 앞서 지난 군민 등 1,8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시범운영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참가자들에게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군은 앞으로 완도만의 특화되고 전문적인 치유 서비스 제공으로 방문객을 유입하여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li> </ul>
11.29	<p>▶ 강진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제 도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진군은 지난 28일, 베트남 풍협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란 운영 주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일괄 채용한 후, 농번기 등에 농가와 직접 연결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 주체는 법무부 심의를 통해 선정하는데, 강진군에서는 도암농협이 운영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li> <li>○ 이날 협상에서 내년 4월 중순까지 20여 명이 입국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냈으며, 특히 강진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이 없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풍협협에서는 공무원 인적 보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실질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MOU는 중간 소개자 없이 양 도시간 지자체가 협상 당사자가 되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인력 수급과 운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이탈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li> </ul>
11.29	<p>▶ 해남배추 북미 수출량 1년만에 7배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7일 해남군 화원면 지중해영농조합법인에서 해남배추 캐나다 수출을 위한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번엔 선적된 배추 물량은 48톤으로, 앞으로 1,000톤의 해남배추가 캐나다 내 H-마트에 공급될 예정이다. 해남배추는 지난해 캐나다 캘거리의 에이마트에 처음으로 150톤이 수출된 이래 현지 교포 등 소비자의 뜨거운 반응으로 1년 만에 7배로 계약 물량을 늘려 추가 수출에 나서게 됐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지난 6일 전라남도, 영암군, 회창물산(주), 동진무역, 지엔티웨이, 지중해영농조합, ㈜왕인식품 등 7개 기관·기업과 남도김치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li> </ul>